

追慕辭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古下 先生님께서 誕辰하신지 118주년인 되는 날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先生님을 崇慕하는 많은 분들이 國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의 先生님 幽宅앞에 모여서 先生님의 偉大한 業績을 追慕하고 있습니다. 玄勝鐘 전국무총리, 金相廈 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Edward Baker 하버드大 교수를 비롯한 여러 외빈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 류찬수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김국주 光復會長님께서 追慕辭를 해주시게 되어 있어서 感謝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언제나 이 자리에 參席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주시던 李東旭 前會長님께서 지난 4월 2日 逝去하셔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그러나 先生님 곁으로 가셔서 平和스러운 時間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고 自慰하고 있습니다. 教育家·言論人·獨立運動家·政治家로서 남기신 先生님의 업적에 관하여는 略傳奉讀을 통해서 이미 보고 올렸으며 또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國民이 숙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 올릴 나위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선생님! 올해는 대단히 特別한 해입니다. 建國 60周年이 되는 해인 까닭입니다. 先生님께서 그렇게도 갈망하시던 光復을 1945년 8월 15일에 마치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左右의 葛藤과 社會의 混雜으로 헤매이던 일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이 渦中에서 先生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갈 길을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던 중에 참으로 不幸하시게도 그 해 12월 30일 아침 6시 5분에 凶漢들의 저격으로 苑西洞자택에서 逝去하신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先生님께서 解放政局을 뚫고 나가시면서 還國志士後援會를 結成하시고 上海 臨時政府의 法統을 支持하시고 李承晚博士와 國民總動員方法을 論議하시는 등 나라세우기에 全力을 다하신 일이 結實하여 1948년 8월 15일에 先生님의 理念인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大韓民國이 建國된 것입니다. 建國大統領이신 李承晚 博士가 祖國分斷의 元兇이라고 매도하는 人士도 있습니다마는 當時의 狀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一部 人士들의 그릇된 歷史歪曲입니다. 1946년에 北韓은 이미 臨時人民委員會를 構成하고 政府구실을 하고 있었으며 祖國의 分斷을 敢行했던 것입니다. 李承晚박사를 建國大統領으로 모신 大韓民國이 바로 先生님께서 設計하셨던 나라세우기였다는 事實에 대

하여는 더 說明할 餘地가 없습니다. 그 後 大韓民國은 많은 苦難을 겪기는 했습니다
마는 꾸준히 發展해 오다가 지난 10年 동안 左派政權이 집권하던 끝에 올해부터는
다시 先生님의 雄大한 나라세우기 이념을 되찾아 李明博정부가 우렁찬 출범을 시작
했으니 참으로 반갑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내려다보시는
先生님께서도 滿足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決코 쉽지 만
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不講客인 高油價가 날로 뛰고 있으며 全世界가 골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例外가 아닙니다. 物價高와 原料費 昂등 등으로
國內·國際경제 狀況이 憂慮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安保狀況도 걱정이 됩
니다. 地形學的으로 어려운데다가 북한의 장난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
다. 美·中·日·露로 둘러싸이고 있는데다가 北韓의 땅 끝 외교는 빈번하게 苦痛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李明博 새 政府는 經濟優先主義, 實用主義등을 내걸고 있으며 外
交·安保에도 焦點을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世界的인 惡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
니다. 이럴 때마다 先生님의 知慧가 切實하게 要望되는 것은 어찌할 道理가 없는 일
입니다. 先生님! 지난 4월 9일 실시되었던 18대 總選에서 저희들은 값진 敎訓을 얻었
습니다. 희한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46%라는 投票率은 우리나라
의 선거역사상 最低率이었습니다. 保守陣營에서도 進歩陣營에서도 重鎮級 政治人들
多數가 落選했습니다. 保守陣營을 대표하는 한나라黨이 過半數를 차지하기는 했습니
다마는 턱거리에 不過했습니다. 우리들은 民心이 무엇인지를 正確하게 把握하게 되었
습니다. 民心은 統合과 妥協의 政治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先生님의 卓越하신 先見之
明이 새삼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先生님! 政治分野를 떠나서 最近에 있었던 일 중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先生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 東亞日報에 人
事改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金炳寬회장과 金學俊사장이 名콤비가 되어
傳統에 빛나는 東亞日報를 멋지게 이끌어 오셨는데 2月 25日 金炳寬회장의 逝去로
말미아마 3月 6日 金學俊회장과 金載昊社長體制로 바뀌었으며 東亞日報는 계속하여
어엿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報告합니다. 또한 지난 3月 1日에는 東亞日報가 3·1
獨立運動 特別 有功者로 선출되어 3·1文化財團이 추대하는 3·1 文化賞을 受賞하기도
했습니다. 言論界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언제나 3·1 獨立運動을 기리고 있는 東亞日
報에 대하여 誠意를 表示한 것입니다. 東亞日報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하신 선생님을 다시 한 번 우러러보는 계기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둘째
는 先生님 宗孫인 宋相現박사에 관한 일입니다. 이미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만 宋박
사는 2003年 2月 4日 뉴욕 UN 本部에서 國際刑事裁判所 初代裁判官으로 選出된 바
있습니다. 3年 任期를 마치고 2006年 1月 26日 9年 任期의 2代 裁判官으로 再選되
어 任地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世界의 司法과 平和를 爲해 헌신의 努力을 다해오고

있는데 그 功績이 높이 評價되어 지난 3月 21日 서울大學校同窓會의 最高賞인 冠岳大賞을 受賞한 바 있습니다. 宋박사의 國際的 活動이 이제는 全世界에 잘 알려져 있으며 서울大學校뿐만 아니라 大韓民國 더 나아가서는 全世界의 자랑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先生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고 올리고자 하는 것은 韓國政治사상학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는 이종은 國民大學校 政治外交學科 교수께서「문화적 민족에서 정치적인 네이션으로」라는 제목으로 追慕講演을 해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李교수는 방대한 내용의 原稿를 작성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幅넓은 李교수의 강연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先生님! 계속해서 우리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先生님 뜻에 맞는지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들은 先生님의 建國理念에 多少라도 報答하기 爲해 努力은 하고 있습니다만 未洽된 點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先生님께서 부디 平安하시기를 祝願하면서 追慕의 人事를 마칩니다.

2008. 5. 8

記念事業會 理事長 權 彝 赫 再拜